

경기도 체육대회·장애인 체육대회 연기

# 고양시 “코로나 진정 우선... 업그레이드된 체전 준비”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개최결정 155억 투입 경기장 개·보수 진행 “이전과 확실히 다른 체전 만들것”



고양시 이재준시장 /고양시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제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양시가 오는 5월 13일 개막 예정이던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어렵게 연기됐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로 108만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5월 개최 예정이던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고양시는 대회 연기 결정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아쉽게 준비해 온 대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다. 하지만, 시는 향후 코로나 확산 진정에 따라 대회 개최 결정에 신속히 응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추구하는 평화, 화합, 실리로 채워질 이번 체전의 모습은 이전과 확실히 다를 것”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체전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

고양시는 이번 대회의 중점테마를 ‘평화와 화합’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시설 구축 및 정비 외에도 ‘고양시민의 차별화

된 전략을 통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추진방침 이행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우선 평화와 화합의 체전개최를 이번 대회의 모토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시에서 개최하는 남북정상회담 기념 “2020년 고양시평화마라톤대회”를,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기간 중에 육상과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남북 간 대화 중단 등 상호 경쟁 국면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남은 기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보스톤마라톤 등 해외 유명 대회에서처럼 선수들과 시민들이 시차를 두고 함께 뛰는 흔치 않은 광경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회 전후로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도 연계해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아름다운 꽃들을 소개하고, 가와지벌써로 대표되는 유구한 역사와 수준 높은 지역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기회로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장 개보수가 관건

시는 이번 대회 개·폐회식 및 주요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는 고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해, 4개 대회 총 87개 종목이 펼쳐질 116개 종목 경기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다. 총 155억 원을 투입해 미비점 보안을 위한 대대적인 개보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신의 주인공은 고양종합운동장이다. 총 51억 원을 들여 육상 트랙 및 잔디를 전면 교체하고, 공인 육상용품 등도 다량 구입해 국제대회가 열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특히 낮은 해상도와 화질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던 2개의 전광판을 전면 교체했다. 지상에 설치돼 있던 성화대와 국기봉 5개도 완전 철거, 시야를 방해했던 구조물을 없앴다.

축구경기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총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백석·중앙·대화·중산 등 주요 축구장 4곳의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한다. 준비를 마친 축구장들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전면 개방한다.

◆생활체육 인프라 전면 업그레이드

시는 대회에 사용될 경기장 외에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관내 생활체육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편성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체육관 3곳을 신축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관내 생활체육시설 27곳을 선정해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이어 2022년까지 3년 간 총 463억 원을 투입해 백석국민체육센터·원흥복합문화센터·탄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개보수가 필요한 관내 생활체육시설 27곳에는 총 173억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경기도체육대회 메인캐릭터

## 광주시, 中 자매도시서 마스크 30만장 받아

이용섭 광주시장, 감사의 뜻 전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중국 광저우시 원귀휘 시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 19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8년 8월 광주에서 만난 이후 1년6개월 만에 전화로 만나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30만장, 체온계 200개 등 방역물품을 지

원해주신데 대해 150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귀휘 시장은 “광저우시의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할 때 광주시는 가장 먼저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보내줬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매도시인 광주에서 많은 성원을 보내줬다”며 “광저우시는 광주시의 도움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 예천군,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점검

김학동 군수, 미생물 배양과정 확인

김학동예천군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로 고균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방문해 미생물이 배양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보급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 군수는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미생물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방문해 미생물이 배양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보급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23일(월)

음력 : 2월 29일

수도권 날씨

4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18

동두천 1/17

가평 0/16

가평 0/16

양평 2/16

용인 5/14

수원 5/14

인천 5/12

서울 4/15

피주 -1/15

평택 1/16

백령도 6/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전남도, 32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 구체화 도비·시군비 더해 1280억 추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취약 계층에 긴급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기본소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경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금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32여만 가구로 압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87만 가구의 37%수준으로 일용 및 단기노동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고루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44만 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은 12만 가구를 제외한 규모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전체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280억원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

불카드로 한다.

전남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추경안을 내달 7일이나 8월 원포인트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적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차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4월 중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상자와 지원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2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내달 도의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북도, 사이버상담회로 해외판로 개척

4개국 31개사 바이어 모집

경북도는 최근 서남아 소비자사이버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제한이 165곳으로 늘어나 수출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화상상담' 뿐만 아니라 서남아 및 인도 소비자시장 진출전략, 아마존인디아와 Shopclues(샵클루스) 입점 설명, 질의응답 등 사전 설명회도 마련했다.

이번 사이버 상담회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4개국에서 31개사 바이어를 모집해, 도내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 생활용



이철우(좌측) 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북도

품 등 수출기업 12개사와 상담을 주선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막힌 수출 길을 뚫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서남아 소비자사이버상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유럽, 미주 등 권역별로 사이버상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담양군 농기계 임대료 인하

담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작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임대농기계 전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기로 하고 감면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임대료를 인하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를 통해 2019년 대비 2200농가가 약 5000만 원의 농가부담 경감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